

蘇, 物質特許 · 知所權法 추진

올 가을 最高會議 제출...내년 4月 施行

蘇聯정부는 特許를 비롯 현행 知的所有權과 관련된 규정을 대폭 개정해 化學물질·의약품 등의 物質特許 인정, 외국기업의 知的所有權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蘇聯정부당국은 物質特許 및 知的所有權과 관련된 새법안을 올가을에 열릴 蘇聯邦 최고회의에 제출, 내년 4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소련이 미국 유럽 등 서방 선진국들과 동일한 知的所有權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은 고르바초프서기장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정책의 중점 과제 가운데 하나인 對서방기술도입확대는 물론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가입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

소련의 현행 제도는 製法特許만을 인정, 제조기술만 달리 하면 같은 물질을 생산하더라도 特許權 침해로 인정되지 않아 서방기업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또 知的所有權 보호도 지금까지 법률보다 구속력이 약한 몇몇 하급규정에 의존해 왔다. 관측통들은 蘇聯이 GATT 新우루과이라운드에서 知的所有權 보호논의가 국제적으로 본격화되면 자극받아 特許 및 知的所有權제도 확립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소련은 또 이번 법안에 새로 發明된 기술의 工業化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술도입촉진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술도입촉진규정을 신설하

려는 것은 중진과 달리 發明技術과 特許를 개인이나 기업의 권리로 인정, 發明이 실제 제품 개발로 이어지도록 發明家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위한 것이라고 소련관계자들은 설명했다.

自動...答機 설치 特許出願절차 등 案內

特許廳에 特許出願 절차등을 案內해주는 自動應答機가 지난 4월 1일 설치됐다.

이 自動應答機는 特許廳의 소개·위치·주소는 물론이고, 工業所有權의 區分 및 保護方法

出願節次 및 서류작성방법, 審査處理기간, 特許資料 열람소 등을 半導體 녹음에 의해 自動으로 알려주고 있다.

自動應答機 電話番號는 568-8162~3이다.

特許廳 人事

※ () 안은 前職

▲ 金惠來(기획관리관실 법무담당관·서기관) 항고심판소 항고심판관

▲ 李德祿(심사3국 농림수산심사담당관·농업기정) 特許廳

▲ 金義博(심판소 심판관·공업기정) 심사3국 농림수산심사담당관 (이상 4월25일자)

▲ 鄭東瑩(국제특허연수원 교수부 기획과·서기관) 심판소 심판관

▲ 尹福均(심사1국 상표심사담당관실①·행정사무관) 국제특허연수원 교수부 교학과

▲ 朴商元(심판소 심판행정실·행정사무관) 심사1국 상표심사담당관실①

▲ 李民雄(총무과·행정사무관) 관리국자료과 파견·심판소 심판행정실

▲ 宋株鉉(관리국 조사과·행정사무관) 총무과

▲ 李承吉(관리국 자료과·행정사무관) 총무과 파견·심사1국 의장심사담당관실②

▲ 林昇澤(관리국 등록과·행정사무관) 관리국 자료과 (이상 5월3일자) <※>